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현 원 필*

〈목 차〉

- | | |
|---------------|---------------|
| I. 서론 | Ⅲ. 서사무가 지도 방향 |
| Ⅱ. 서사무가 지도 현황 | Ⅳ. 결론 |

I. 서론

이 글은 서사무가를 문학교육 재료로 활용할 때 '무엇'을 지도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존의 고등학교 문학교과에는 극히 제한된 수의 서사무가가 교육 재료로 활용되도록 제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사무가가 문학으로서 지니는 교육적 효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서사무가가 문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서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현장에서 서사무가 문학교육이 행해져 왔다. 이제는 서사무가의 위상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서사무가를 활용한 문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현행 6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에 서사무가를 활용하여 교육되는 실정을 살펴보면 서사무가의 인식에 대한 편협성, 학습내용의 자의성, 서사무가 특성의

* 제주일고

상실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사무가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해 보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과의 교육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고 문학 영역의 학습은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¹⁾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문학과목은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을 즐기며 깨달음을 얻고,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목으로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문학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가 학습자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문학능력을 세련시키는 것'²⁾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며 다른 하나는 문학을 통한 가치의 함양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서사무가 작품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이면에는 서사무가가 교육 현장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정한 기능이란 서사무가의 외적 상황, 즉 구연자나 창작자의 능력³⁾에서 오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서사무가는 창작자와 향유자들이 문학적 상상을 통하여 체험을 공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서사무가는 과거에서부터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드러내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연의 과정에 청중들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비록 신이라 할지라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동참하면서 삶의 양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자는 일정한 정서적 감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유용한 증거의 틀로 작용하는 것이다.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1997, pp. 28- 29.

2) 위의 책, p.79.

3) 특정한 의례에서 무당이 신을 청하고 '공수' 하는 탁월한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이런 점에서 제주서사무가의 위치와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나타난다는 점⁴⁾을 이유로 현행처럼 문학교육에서 제주서사무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에서의 서사무가는 현재도 생명력을 지니고 구전되고 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무가는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문학은 교육 현장에서 말하기·듣기 영역의 교육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문학 창작의 실기 교육의 재료, 자주적 자아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재료, 문학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차이를 '口'와 '記錄'에 둔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구비문학을 문학작품 자체보다는 교육자료적 측면만을 중시함으로써 구비문학 작품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비문학 특히 서사무가가 위와 같은 교육적 효용을 지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사무가는 나름대로 일정한 구조와 체계를 갖춘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학의 특성과 문학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서사무가 지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서사무가 지도 현황

서사무가의 지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사무가가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재설정 현황, 무가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김기창은 “같은 서사무가라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자료는 우리 고유의 무가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러한 자료에 반영된 여러 요소가 우리 민족 전체의 특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전승되는 무가를 교육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특정지역에서 구전되는 무가를 배제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민족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로 무가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기창, “무가교육론”, 『교육한글』 6호, 한글학회, 1993, p.25.
- 5) 장석규, “구비 문학 효용론”, 『구비문학 연구』 제 8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p.350.

1. 제재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모두 18종이다. 그 중 서사무가를 교육의 제재로 활용하도록 제시된 교과는 5종이다. 그런데 수록된 서사무가의 작품은 두 편에 지나지 않는다. 5종 중 3종의 교과서가 <바리공주>를 수록하였고, 나머지 2종의 교과서는 <성조풀이>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무가가 문학교육의 대상으로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특히 수록된 서사무가들은 문학으로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사무가의 수록 형태

교과서 수록형식	<A>오세영 외	박경신 외	<C>성기조	<D>윤병로 외	<E>김봉균 외
수록제재	바리데기	성조푸리	바리데기	바리공주	성조풀이
제시단원	Ⅲ. 한국 고전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4. 근대 여명기의 문학 (8) 무가의 문학 세계	Ⅱ. 서사 문학의 이해 2-3. 소설의 문체와 시점	Ⅳ. 구비 문학과 한시 2. 민요와 무가	Ⅲ. 문학과 현실 1. 삶의 총체적 모습 2) 문학의 가치	Ⅵ. 근대 의식 성장기의 문학 1.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2) 성조풀이

위의 표를 살펴보면 <A>의 경우는 현재의 무가 형태가 18세기 후반에 와서 자리잡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대 문학으로 취급하였고, 의 경우는 소설과 함께 문체와 시점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재료로 취급하고 있다. <C>, <D>, <E>는 문학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서사무가를 독립된 문학의 영역으로 설정했다면 학생들에게 무가를 문학으로서의 개념을 심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 개념 인식

교과서마다 무가와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가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편협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문학 교과서 18종에 드러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난 무가에 대한 인식 실태를 살펴보자.

〈1〉 민요는 무가(巫歌)와 함께 서정 갈래의 최초의 형태이다.

〈김태준 외, 「고등학교 문학 (상)」, (주)민문고, 1995, p.91.〉

〈2〉 우리 고대 문학인 원시 종합예술은 애초에 무가(巫歌) 등의 형태를 취했으리라 짐작된다. 〈김태준 외, 「고등학교 문학 (하)」, (주)민문고, 1995, p.229.〉

〈3〉 판소리는 사대부계의 소설이나 산문 문학의 단편적인 요소인 설화에다, 광대의 장기인 민요(民謠), 무가(巫歌), 서사민요(敘事民謠)를 삽입하여 대사를 이룬다. 〈김태준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주)민문고, p.246.〉

〈4〉 우리 시가사(詩歌史)에서 소망과 기원을 담고 있는 최초의 노래는 '구지가(龜旨가)'이다. 이 노래는 고대 국가 형성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탄생을 바라는 소망을 신을 향해 기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무가(巫歌)나 민요(民謠)에도 인간의 소박한 꿈과 소망이 담긴 경우가 많다.

〈박경신 외(1995), 「고등학교 문학 (하)」, 금성교과서(주), p.81.〉

〈5〉 이 밖에도 선비 정신과 지조(志操), 무속 신앙(巫俗信仰), 자연 친화 등이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최동호 외(1995), 「고등학교 문학(상)」, 대한교과서, p.280.〉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독립적인 무가 개념 설정하지 못하고 무가의 발생이나 다른 장르와의 관련성 정도 언급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한 것과는 달리 무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교과서도 있다. 이것은 무가문학 자체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무가의 서사적 성격을 제시함으로써 서사무가의 의의를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6〉 우선 무가는 원래 무당이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지 주술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 체험과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이 중, 서사 무가는 단순히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고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격을 갖춘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특성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김봉근·최혜실(1996),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p.53.〉

위의 인용 중 〈1〉은 '시와 민요'를 논의하면서, 〈2〉는 '고대문학의 전개'를

논의하면서, <3>은 '한국문학의 흐름' 중 판소리문학을 논의하면서, <4>는 시의 '내용과 주제에 따른 감상'을 논의하면서, <5>는 '한국문학의 특질'을 논의하면서 언급된 내용들이다. <6>은 '서사문학 이해의 기초'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의 교과서는 무가에 대한 인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아진다. 즉 <1>~<5>는 무가를 독립된 문학의 형태로 보고 있다기 보다는 민요, 판소리, 시의 특징들을 논의하는 데 부수적으로 끼어 들어간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무가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재료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습 내용

무가의 학습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작품의 '학습목표'나 '작품의 감상 안내'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리공주>를 무가 교육의 제재로 삼은 것은 세 개의 교과이다. 앞에서 제시한 <A>교과에서는 학습목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1) 무가의 문학적 특성을 안다.
- (2) 무가 속에 담긴 정서와 인생관을 이해한다.

<D>교과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세 가지이다.

- (1) 이 글을 통하여 설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 (2) 이 설화의 내용을 통하여 고대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알아본다.
- (3) 설화와 다른 문학과의 관계를 안다.

반면 <D>교과와 동일한 무가를 소재로 삼은 <C>교과에서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조풀이를 제재로 한 교과는 두 개인데, 그 중 한 교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한 교과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E>교과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두 가지이다.

- (1) 무가의 서사구조를 안다.
- (2) 무속의 세계에 나타나는 민족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E>교과와 동일한 무가를 소재로 한 교과에서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엄밀히 따진다면 <C>교과와 교과도 '작품이해와 감상' 부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가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학습목표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제시된 학습목표는 소재로 삼은 작품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무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가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보다는 <바리공주>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무가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은 학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가문학 제재를 통해서 그 작품이 지니는 개별적인 특성, 미적 구조, 작품의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도 문학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교과에서 무가를 학습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가 자체의 의미나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문학 교육의 목표 달성에 있다고 한다면 문학교육의 제재로서의 무가의 위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현행 무가 지도 실태는 다음의 두 가지 면을 고려하여 무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첫째, 무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가에 대한 인식 양상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무가문학의 본질을 사상성에서 찾을 것인가 예술성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문학은 언어의 형상화를 통하여 미의식에 호소하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생과 사회의 의미를 새롭게 풀이하고 탐구해 가는 사상의 세계요 철학의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무가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자리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무가를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가는 인간과 자연에 대해 내리는 수수께끼이다. 그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생명에 대한 사고 등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래와 생존의식에 대하여 사고해 왔다. 양상은 다르지만 신화와 전설 및 철학들은 그때그때 인류가 도달한 인식의 형태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학교에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무가의 교육내용을 무가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서사무가 지도 방향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서사무가문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서사무가의 교육재료로 제주 <이공본풀이>를 택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특정한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문학이 개별적인 작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사무가가 지니는 공통적인 특성만을 중시한 지도방향 설정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무가 문학작품이 지니는 독특한 체제 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학생들이 작품 감상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서사문학의 구조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문제와 관련한 무가 교육의 소재로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학생들에게 문학의 다양성을 학습하게 하거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학 제재를 제공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다양한 문학에 대한 접근은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들을 시사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보면 제주서사무가의 문학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서사무가의 지도 방향을 네 가지의 측면과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서사무가가 지니는 원형심상의 측면, 둘째는 서사문학으로서 서사적 측면, 셋째는 문화의식과 관련한 측면, 마지막으로 통사적 측면과 관련한 지도이다.

1. 원형심상과 관련한 지도

서사 무가는 원형심상과 관련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원형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문학 내에서 면면히 연결되어 지속되는 것은 문학이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고 발전되는 모습을⁶⁾을 보여준다.

6)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p. 14.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원형심상과 관련한 지도는 문학의 보편적 존재양상과 민중생활 또는 민족적 창조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한국문학의 전반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이나 원형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이 과거와 단절된 상황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즉 서사무가를 통하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연속적인 입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여러 서사무가의 원형심상이 신화, 시, 소설 등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공본풀이>는 주인공의 죽음이 핵심적 사건이고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꽃이 지는 기능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꽃'은 특정한 사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식물과 관련되어 나타난 생명현상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꽃이 인간의 생사나 생명현상과 관련되는 경우는 여러 서사무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꽃피우기 시합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는 꽃이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꽃피우기의 경쟁은 인간 차지를 위한 경쟁을 의미하기도 한다.⁷⁾ 인세 차지 경쟁 설화는 인간을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의 기초는 '경쟁' 그 자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물론 이 때의 경쟁은 상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 탄생에 깊이 간여하여 나타나는데, <삼승할망본풀이>에 이러한 사고가 잘 나타나 있다. 아기의 잉태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을 '삼승할망'이라고 하는데, 이 '삼승할망'은 꽃을 들고 다니며 포태를 준다. '삼승할망'이 산신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능을 수행해야 한다. 꽃은 이러한 기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편, 꽃은 생명의 탄생이나 잉태의 원형심상으로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데기> 무가와 관련시켜보면 '부활'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7)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p.9.

수 있다. '바리데기'는 병에 걸린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서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구하러 다니며 모진 고난을 겪는데, 그 과정에 꽃을 구해 와서 부모를 살려낸다. 꽃이 생명을 살려내는 기능, 즉 부활의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경본풀이>에도 이와 동일한 심상이 나타나 있다. 죽은 문도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꽃이다. 그녀는 꽃을 구해와서 죽은 남편을 다시 살려낸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생명부활의 기능이 바로 꽃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대문학 작품도 서사무가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헌화가>의 견우 노옹이 수로부인에게 높은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다 드리겠다는 것에서 견우노옹은 생명부여의 직능을 수행하는 자, 즉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당이겠고,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꽃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신의 직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받아들이는 자, 수로부인은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당에게 잉태나 생명을 기원하는 곳의 의뢰자라고 볼 수 있으며, 신화적 입장에서 보면 신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술가>에는 꽃이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삼국유사>의 月明師 兜率歌條⁸⁾에는 월명사가 꽃을 뿌리며 꽃에게 '은근하고 정중한 꿈은 마음이 시키는 것이니 미륵좌주를 모시라' 했더니, 꿈고 깨끗한 동자가 나타난다. 이는 공중에 뿌린 꽃이 곧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생명현상에 대한 원형심상의 차용은 현대시를 교육하는 데도 유용하다.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탐구를 시도하는 대상으로서의 꽃을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원형적 심상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꽃이 바로 인간의 존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를 노래할 때마다 차용되는 소재가 바로 꽃이라는 원형 심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형 심상은 허구라는 소설에도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어 신화적 사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이행된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8) 一然, 『三國遺事』, 感通 第七, 月明師 兜率歌條.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소설 교육에도 유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장화의 출생 장면에 꽃이 등장한다. 특히 이 장면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고 때문에 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득 한 선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꽃 한 송이를 부인에게 주니 그 부인이 꽃을 받으려 할 즈음에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꽃이 변하여 선녀가 되어 품속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은 꽃이 인간으로 변화된 경우를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 바로 꽃은 생명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심청전〉을 비롯한 많은 고대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러한 꽃과 생명의 관계는 인간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구체적 사물인 꽃보다 일반화된 사물로 나타난다. 즉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인간의 삶과 동일시하는 심상으로 이어진다.⁹⁾

김동리의 〈무녀도〉는 현대인과는 달리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연세계와 교통이 가능했던 전통사회의 인간의 실상을 보여 주기 위한 작품이다.¹⁰⁾ 원래 원시인들은 외계에 수많은 귀신이 가득 차 있다는 우주관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병을 앓거나 죽게 되는 것은 악마의 마성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현대소설의 경우도 원형심상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청준의 〈새와 나무〉는 환생의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작품 심층에 질게 드러우면서, 작품 제목 그대로 '새'와 '나무'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¹¹⁾ 이 소설은 20여 일간의 노독으로 지친 한 나그네가 작은 농가에 도달하여, 나무를 정성껏 돌보는

9) N. 프라이에 의하면 기독교의 변체설에서도 동물계와 식물계는 서로 동일시되고 있으며, 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도 동일시되고 있다. 다만 종교적 동일시와 시적인 동일시는 의도에 있어서만 다르다. 전자는 실제적이며 후자는 비유적인 것인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식물계와 인간계와의 연관성은 인류의 보편적 원형 심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N.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pp.193~201 참조.

10)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p.52.

11) 위의 책, p.54.

‘주인’을 만나고 나그네의 눈에 그 주인 남자가 ‘나무’와 같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데서 시작된다. 이 소설은 인간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 불행하게 떠도는 자를 ‘새’에 비유하고 한 곳에 머물러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자를 ‘나무’에 비유하여 그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인간을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학동 나그네〉에서의 ‘학’은 안주할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나그네’의 이미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을 동질시하는 데서 연유한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달빛을 받고 있는 ‘메밀꽃’이라든가 ‘당나귀’ 등은 주인공의 삶과 동질적 관계를 이루게 하는 신화적인 자연관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허생원과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당나귀’는 허생원의 분신이자 그의 애육에 가득 찬 본원적인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형심상의 측면에서 지도는 한국문학이 지니는 특성을 제시하여 문학의 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신과의 관련성, 더 나아가서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적 정서를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적 측면과 관련한 지도

고등학교 문학 교육이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¹²⁾으로 설정되어 있음은 그만큼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데 독자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곧 수용자의 처지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사무가 또한 청자를 고려하여 구연되고 청자와 더불어 체험의 장소를 공유하면서 현장성 있게 구연되는 점은 서사무가의 기능

12) 교육부, 앞의 책, p.28.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적 측면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특히 문학이 독자들에게 의해서 향유되는 것이라면 더욱 무가의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서사적 요소와 무가의 기능을 중시하여 무가지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사적 요소의 측면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가문학과 후대의 서사문학의 인물과 사건과 배경들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후대의 서사문학의 인물들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다르다면 왜 다르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사고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삼대의 인물이 기본인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가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치는 한국문학의 전형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이는 〈이공본풀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단군 신화〉나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사의 문제는 중심 인물을 누구로 부각시킬 것이냐는 이야기 전승자들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심 인물의 선택은 바로 문학 향유자들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단군 신화〉의 이야기의 전개는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하늘나라 환인의 이야기에서 비롯되고, 그의 아들 환웅의 이야기로 연계되면서, 〈단군신화〉의 전승자들이 부각시켜 놓고자 하는 의도에 알맞은 인물인 '단군'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단군 신화〉의 이야기 전개는 '단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해모수 신화〉와 〈동명왕 신화〉를 연계시켜 놓고 보면, 2대인 '해모수'라는 인물에 초점이 놓이면 〈해모수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고, 3대인 '주몽'에 초점이 모아지면 〈동명왕 신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야기 전승자들이 등장인물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며 동시에 전승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이 생사관장 신인 '한락둥이'로 선택됨은 이 서사무가의 구연자나 청중들의 의도가 관여한 결과이다. 이는 소아사령곳에서 불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차적 청중이 자식을 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관

심사인 자식에 관한 내용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다.

3대인 '한락동이'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야기의 소재가 아버지 찾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곳의 의뢰자는 여성인 어머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죽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이다. 곳의 의뢰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야만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죽어버린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죽이는 내용을 설정해 놓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아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죽은 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곳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 특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체 문학의 구조는 성장과 찾음의 이야기, 원형과 빗담의 이야기,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 물음과 풀림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³⁾ <이공본풀이>는 그 중 성장과 찾음의 이야기와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인간적인 문학이요, 가족사와 연관해 보면 아버지를 상실한 자가 아버지를 찾는 문학이 될 것이다. 성장의 이야기란 중심 인물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과정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성장의 이야기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주인공의 신분이나 능력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바로 <이공본풀이>는 '한락동이'의 능력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장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반면, 찾음의 이야기란 중심인물이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본풀이>가 이러한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삶의 조건 속에서 삶의 조건을 상실한 인물들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려는 구조를 가진 작품을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한락동이'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이며, 아울러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

13) 김열규·신동욱, 『문학(하)』, 동아출판사, 1995, p.112.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공본풀이>는 상실과 되찾음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둘째는 무가의 목적성, 즉 기능과 관련하여 지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가의 실제적 기능은 항상 청자에게 작용할 때만 성립한다. 문학은 독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창작 주체인 작가는 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학을 담화(discourse)라고 보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문학적 담화는 <작가 작품 독자>의 역동적 관계의 산물¹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의 청자는 실제적으로는 굿을 의뢰한 자이겠지만, 더 넓게 잡으면 굿판에 참여한 모든 청중들이다. 따라서 무당의 입을 통하여 구연되는 서사무가의 내용은 굿의 의뢰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청중 모두가 굿의 의뢰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굿판 자체가 의뢰자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한 여타의 청중들은 의뢰자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누구나 다 자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신과 관련하여 사고하고 인간의 삶에 신을 간여시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 여기에 바로 무가의 기능이 존재한다. <이공본풀이>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이공이라는 신의 행적을 통하여 청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죽음의 세계란 삶의 세계와 엄연하게 다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저편에 존재하는 세계이고 그 나름의 질서와 원칙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청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바로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구연의 문학으로서 서사무가는 화자와 청자가 공존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창조되므로 문학의 창조와 수용과정을 체험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재료가 될 수 있다.

14)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p.23.

3. 문화의식 측면과 관련한 지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은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상통한다. 교사가 교수·학습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내용이다. 교육내용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장 포괄적인 것은 지식, 기능, 가치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은 지식 영역, 기능 및 과정 영역, 가치 영역으로 구성된다.¹⁵⁾

그 중에서도 문학교육의 중심은 지식의 영역이나 기능 및 과정 영역이라기 보다는 가치 영역에 놓여진다. 문학이 사물(대상)에 대한 해석이고 의식의 표현이라면 그 해석과 의식은 환경에 따른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문학은 문화의식의 소산이다. 무가는 민중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반영하여 창조된 문학이기 때문에 무가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접하게 될 것이므로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시각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기 중심의 편파적인 사고와 편중된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재료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무가가 신을 불러 강림하게 하고, 그에게 인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신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세계가 인간계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는 좀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세계 또한 성스러운 세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대의 '제천의식'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복하고 감사와 감격이 주된 내용과 정서를 이루었을 것¹⁶⁾이라고 볼 수도 있듯이 서사무가에서 찬양되는 존재나 세계는 최상위의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무가가 구연되는 상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성스러운 권능에 감복하고 그 결과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15) 김대현·김우석,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1998, pp.89~90.

16) 손오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14집』 백록어문학회, 1998, p.171.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이러한 점에서 무가문학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연원, 삶과 행동의 근원적 원리로서 문화의식, 나아가서는 자연에 대한 고대인의 의식세계를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 정서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에서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인간 중심의 사고다. 신은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삶을 저만큼 떨어져서 지배하거나 존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면에 직접적으로 매우 가깝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가에서 신이 마치 일상세계와 같은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지는 것은 그만큼 일반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며 삶에 대한 애착의 표현이다. 무가에는 도달해야 할 이상세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 세계란 조화와 질서를 갖춘 세계이지 만들어 내거나 실현하거나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향해야 할, 또는 그리워해야 할 이상향은 오히려 현실 세계뿐이다.¹⁷⁾

그런데 무가의 세계에서는 현실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잃은 것이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 <이공본풀이>의 장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가가 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세계는 우리 문학의 소재가 되고 우리 문학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아진다. 무가는 삶에서 느끼는 여러 모습과 다양한 삶을 담은 생활의 문학이다.

그런데 신과 인간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 신화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환웅'은 천상계인 환국에서 인간계인 태백산으로 하강했고 인간이 된 응녀와 혼인을 했다. '해모수'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왕래하면서 정사를 보았고 유회와 혼인을 했다. 이처럼 신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천

17) 김인회, "한국서사무가의 교육철학적 의미", 『한국문화원논총』 31집, 1979, p.151.

상계의 존재는 그대로 인간계에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이 되고 그 결과 부모를 통한 탄생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신도 인간의 세계로 편입되면 인간계의 질서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며 인간세계가 신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¹⁸⁾

그렇지만 인간계의 어려움을 타계할 영웅적 존재는 신의 세계로부터 온다는 사고가 소설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초기의 신과 인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현실적인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학 작품은 인간을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작품이 쓰여진 당대의 문화를 전수해 주며,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 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문학 작품은 전통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높이 인정받아 왔는데,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가치관이나 도덕성, 혹은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무가문학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 및 도덕성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문학 교육의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나 가치는 바로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공본풀이>가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현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연유한다.

셋째,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화는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그것은 양극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천지왕본풀이>는 '대별왕'이 '소별왕'을 포용하고 '소별왕'은 '대별왕'의 허용 속에서 사건이 진행된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무가는 신과 인간의 무한한 조화를 추구하고 그 조화 가운데서 삶의 창조적인 힘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요행이나 운명에 기대지 않는다. 늘

18)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8, p.34.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과의 조화 속에서 삶을 충실히 해온 한국인의 모습을 무가에서 보게 된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죽음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 죽음의 세계가 현실적인 삶의 세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한 데 있다. 삶은 죽음과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인식은 보다 더 삶을 역동적으로 누리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작품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본질적 속성은 실제적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이나 종교적·철학적 사상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을 지닌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적 능력 속에 있다.¹⁹⁾ 작품 속의 세계란 꿈과 공상의 세계도 아닌, 두 세계의 모순을 종합한 세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체험과 연관된 재현이며, 따라서 우주적인 진리의 양상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의 양식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형상화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의 의의를 갖게 하는 새로운 양식인 미를 구현하게 된다. 이때에 활용되는 도덕적 가치 또한 미적 가치를 전제하는 조건일 뿐이며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가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본풀이〉는 어디까지나 ‘장자’와 ‘한락동이’의 갈등, 그 갈등의 확대와 해결, 인간의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삶과 죽음의 상징적 조합이 미적 구조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청자들은 구연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저승을 여행한다. 그런데 그 안내는 상징적 형식을 띠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오직 상상적 힘에 의해서만 느껴지는 것이다. 즉 상상적 체험만이 구연의 과정에 청자들에게 남아 있게 된다.

이 과정에 현실적 갈등이나 부조화나 고통과는 완전한 거리감을 두게 되는

19) 전규태, 『국문예학과 가치론』, 명진사, 1979, p.205.

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미란 다름 아닌 순수한 자연의 상태 속에서 자연의 이법을 자신이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의 삶은 이치대로 되어 간다는 것이다. 즉,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얻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간다는 것, 특히 사람이 죽어서는 이 세상의 인간적 삶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승에서 영위하고 있는 삶은 저승으로 이행하기 전의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체득하게 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의 삶의 현상은 저승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청자들은 체득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공본풀이>가 구현되는 상황에서의 청자들은 상상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설정한 세상의 전범을 직접 체득하며 그러한 상황이 다시 우리들의 삶에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여러 가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면에는 사상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상은 가치의 체계화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바로 이러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락동이의 행위가 비록 장자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갈등은 극단적으로 대립을 보이는 갈등이 아니라 상호간의 뿌리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삶이 바로 연결되고 죽음이 삶이고 삶이 곧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천지만물이 쉼 없이 연속된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듯이,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여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평가되는 <금오신화>의 체계에도 나타나게 된다. 즉 현실계가 비현실계로 이어지고, 현실계의 존재의 결핍이나 불행함이 비현실계의 존재의 충족이나 행복으로 이어지고 다시 비현실계의 충족과 행복이 현실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사상의 체계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하여 예술적 가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서사무가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식 측면과 관련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 김창진, “金鰲新話의 순환체계연구”, 『국제어문』 4집, 국제대학교, 1983, pp.5~35.

4. 통시적 측면과 관련한 지도

무가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가문학이 지니고 있는 그 작품 자체의 문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문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떤 소재와 계기가 예술로 형상화되었는가를 파악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의 무가를 건국신화가 퇴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의 전승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²¹⁾이라면 무가가 그 후대의 문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대문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통시적 차원에서 무가의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문학에 내재하고 있는 원형성이나 서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현대의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학습하려면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과거의 문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문학사와 관련한 통시적 측면을 지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비 문학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전승자에 따라 구전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구전되는 내용의 모든 부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구비 문학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쉽지 않은 기본적인 골격인 전승축과 구연자에 따라 쉽게 변화되는 부분인 개성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²⁾ 이 개성축은 구연의 시간과 장소, 청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전승축을 유지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속에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변화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공본풀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는 <안락국태자경>이나 <안락국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무가와 여타의 한국문학과 통시적 관련성에서 무가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은 현실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그 현실의 세계에 고난이 닥칠 때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상상력의 소

2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p.54.

22)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7, p.83.

산으로서 나타난 것이 서사무가의 타계이고 신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계나 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현실 세계에서 탈피를 소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삶에 닥친 고난을 이겨보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일 뿐이다. <이공본풀이>와 관련하여 볼 때 죽음관장신을 설정하여 저승을 관장하게 하는 상상은 현실의 삶을 중시한 결과이다. 죽음이 당대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노동이 고난으로 여긴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 노동요가 탄생하고 그 노동요의 근간은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중시의 결과로 나타난 타계나 신의 설정은 서사무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인간세계에 신이 내려와 다스려주기를 소망한 결과 <단군신화>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 국가건설을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소망한 결과 <구지가>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사고가 변하면서 신의 자리를 대신 잡은 존재가 영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웅들도 서사무가의 신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인물 유형이 <동명왕 신화>의 인물유형과 관련을 맺는 것은 신화가 인간 공동의 심리적이고 정신적 활동에 있어 종족과 민족을 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사무가의 청자들이 신의 세계를 설정하여 그 세계를 소원한다고 하면 <홍길동전>도 영원한 낙원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보편심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한락동이’가 ‘물’을 건너 상실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이별이 없는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물 건넘은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서도 많이 차용되고 있다. <선녀와 나무꾼>의 물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장소이며 매개체이다.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의 대동강은 이별의 강으로 설정되어 있다. 님이 떠나지 않은 이쪽 서경의 세계는 이별이 없는 세계이며 대동강을 건너 저쪽의 세계는 다른 여자와 어우러진 이별이 존재하는 세계다. 정지상의 <送人>에 나타난 대동강도 이별의 장소로 차용된다. 현대소설에서는 이별의 장소라기보다는 한층 더 발전되고 변화된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물레방앗간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장소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 건넘의 과정은 ‘동이’와 ‘허생원’

23) 최선옥, “홍길동전의 신화비평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1979, p.227.

서사무가 문학의 지도방향

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소재이다. 하근찬의 <수난이대>의 외나무다리 설정도 물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만도'와 '진수'의 화합을 매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변화도 '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시대에 따라 달리 파악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서사무가에 나타난 물에 대한 사고가 현대문학까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필자는 지금까지 서사무가의 지도 방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서사무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한국 문학의 원형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형심상과 관련한 서사무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살폈다. 둘째, 서사적 요소와 기능을 고려한 서사적 측면에서의 지도가 필요함을 살폈다. 셋째, 문화 의식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인간중심의 사고, 현실적 삶의 의미와 가치,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그리고 대상에 대한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무가와 고전문학, 현대문학과 연계성을 고려한 통시적 측면에서 지도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살폈다.

서사무가가 기능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문학교육의 재료로 소홀히 취급되거나 구비적인 성격만을 강조하여 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소홀히 취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서사무가도 한편의 문학작품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지도과정을 통하여 문학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적 성격과 아울러 다른 문학과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유용한 준거의 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문학성이 뛰어난 서사무가를 교육재료로 선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에 합당한 지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장에서 서사무가 문학이 생명력을 지닌 문학으로 취급될 것이며 아울러 문학교육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재료로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교육부, 1997.
- 김기창, “무가교육론”, 『교육한글』 6호, 한글학회, 1993.
- 김대현, 김우석,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1998.
- 김인희, “한국서사무가의 교육철학적 의미”, 『한국문화원논총』 31집, 1979.
- 김창진, “金鰲新話의 순환체계연구”, 『국제어문』 4집, 국제대학교, 1983.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한국구비문학사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8.
- 손오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 14집, 백록어문학회, 1998.
-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 이광풍,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 장석규, “구비 문학 효용론”, 『구비문학 연구』 제8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전규태, 『국문예학과 가치론』, 명진사, 1979.
-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 최선옥, “홍길동전의 신화비평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1979.
-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7.
- N.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